

## 임상간호 전문가

이 은 옥  
(서울의대 간호학과 교수)

간호원은 3~4년의 전문교육을 통해 일반실무자(general practitioner)로 성장한다. 이들은 임상이나 지역사회 어떤 곳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어떤 부분에서도 깊숙히 알고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떤 병원에 취직하면 자신의 전문영역 없이 내과에서 외과로, 외과에서 인공신실로, 간호부에서 보내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러한 인사이동에 특별히 전문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전무하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해석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의 내면적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시도하며 경험을 쌓아가는 것은 너무 시도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간호원이 자기 환자의 간호문제에 자신감을 갖지 못할 때 아무리 시간이 있고 의무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접근할 자세가 되어있지 못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간호교육자와 간호행정가를 키우기 위한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이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인재들이 자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학생을 교육하고 연구하는데 바쁘며 정책적인 것을 다루기에 바쁘고 실제로 간호의 실천에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임상의 예를 보더라도 연봉이 쌓인 간호원은 의해 수간호원과 간호감독으로 승진하며 이들의

위치는 행정가로써 일차적인 환자간호에서부터 떠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환자간호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한 문제점을 안겨주며 간호과정의 적용 특히 간호진단과 간호중재법의 개발 및 시행이 가속화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그렇고도 환자를 떠나지 않고 환자의 간호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간호법을 적용하고 test하는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54년 pepplau가 정신간호학의 임상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program을 대학원 수준에서 시작하였고 그 이후 계속 여러 분야에서 임상전문가를 3개월~2년 교육 program으로 실시해 왔으며 1980년 기준으로 대학원 수준의 임상간호 전문가 program이 미국내 75개나 된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원 수준에서 임상간호학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양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의 간호학 발전을 위하여 임상간호 전문가 program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하여 금번 지면보수교육에서는 각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양성되고 있는 program 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지 않은 program을 소개하고 그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